

「은총」과 「욕기」의 크로노토프

김 철 수

I. 서론

『더블린 사람들』에서 대중 생활기의 마지막 단편인「은총」¹⁾(“Grace”)은 술에 취해서 술집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허를 다치고, 체면에 적잖은 손상을 입은 톰 커어넌(Tom Kernan)의 취중 사고와 그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물리적으로 떨어져나간 커어넌 씨의 허와 파편화된 그의 말투 그리고 공허한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친구들의 신앙관을 고려해볼 때, 「은총」의 주제를 평행사변형의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형태인 ‘경절형’이라고 여기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Park 26).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 기형 상태를 영속화시키는 환경적 요인이 작품 곳곳에 운명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자주 눈에 띈다.

그러한 환경의 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 더블린 사람들 중 한 사람인 커어넌은 한 사람의 가장이자 사회인으로서 ‘경절형’ 그 자체이다. 더 나아가서 음주와 무절제, 그리고 허장성세로 표현될 수 있는 커어넌의 물리적, 정신적 마비 상태는 ‘경절형’의 상태에 처해있는 아일랜드라는 시공간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1) 본 논문에서는 『더블린 사람들』의 단편의 제목은 「은총」으로, 그리고 종교적 교리로서의 같은 어휘는 ‘은총’으로 표기한다.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커어넌은 현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또한 조이스의 눈에 비친 아일랜드도 그에 못지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 때 주어지는 도움이 바로 커어넌과 아일랜드에게는 ‘은총’인 것이다. 이러한 은총의 필요를 깨닫고 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조이스가 “조국의 도덕사의 한 장”(Letters I, 134)으로서 『더블린 사람들』을 쓰게 된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단편에서 조이스는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은총’이라는 종교적 어휘를 자신 또한 경절형의 형태, 즉 그 완전한 의미 중에서 일부를 배제한 세속적 패러디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조이스는 커어넌이 “이 두 개의 몸치장[실크햇과 각반] 덕분에(By grace of) 언제나 자기 일이 잘된다고 말했다”(D 154)고 전하면서 종교적인 어휘인 ‘은총’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세속화시키고 있다. 그의 친구인 파워 씨에게 있어서는, 그의 이름이 암시하듯이, 세속적인 권력과 친구의 가족을 위해 여유있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D 155)이 그의 은총이고, 또 다른 친구인 커닝햄(Mr Cunningham)에게 있어서는, 그의 불행한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과 영향력(D 157)이 그의 은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맥코이(Mr McCoy)의 경우에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의 경험 이후에 그가 차지하게 된 직업상의 위치(D 158)가 그의 은총이다. 그리고 맨 나중에 위스키 병을 들고 찾아오는 포가티(Mr Fogarty)의 경우는 그의 교양과 딱부러지는 말투 등이 그의 은총이다(D 166). 마지막으로 커어넌 부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남편을 둘러싼 이 모든 친구들이 “도깨비”같기도 하고 “성령”같기도 한(D 158) 은총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조이스가 이처럼 종교적인 어휘를 세속화해서 패러디한 일차적인 목적은 아일랜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그 위상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톨릭교회라는 제도와 그 제도를 둘러싼 인물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풍자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더블린 사람들』의 단편 중 하나인 「은총」에서 세속화와 패러디화를 통해서 그 의미가 평가 절하되고 있는 ‘은총’의 문제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은총’이라는 어휘가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먼저 그 어휘의 본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약성서 중 「로마서」에 나타난 교리로서의 ‘은혜’ 또는 ‘은총’의 함의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크로노토프(Chronotope)”의 개념의 토대 위에서 살펴보고, 「은총」과 동일한 크로노토프 상에서 전개된다고 여

겨지는 구약 성서 중 「욕기」의 내용 구조와 비교함으로써, 크로노토프의 개념이 작품 속에 함의된 의미의 확대 재생산에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더블린, 종교, 그리고 크로노토프

조이스의 작품 안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그만큼의 공격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종교’이다. 조이스는 “아일랜드: 성자와 현인의 섬”이라는 그의 에세이에서 “국가의 영혼은 무용한 투쟁과 허물어진 법제에 의하여 쇠약해지고, 개인의 독창성은 교회의 영향과 설교에 의하여 마비된다”고 기록한 적이 있다 (Joyce 2000, 123). 계속해서 그는 종교라는 제도에 의해서 마비된 더블린이 “분노한 신의 방문을 받은 나라”(123)라고 주장한다.

페어홀(James Fairhall)도 교회의 주요한 결점 중 하나가, 대 기근 이래로 주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민들에 대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아일랜드의 교회가 노동계급의 경제적인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식을 갖기 보다는 더블린의 빈곤을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여김으로써 일종의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했다(Fairhall 87-91). 심지어 이 작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절형 은총의 상징성을 “영적인 은총을 식민지 중산층에게 팔아넘기고 스스로를 살찌우는데 급급한, 왜곡되고 타락한 아일랜드의 가톨릭교회를 반영해 주고 있는 퍼어든 신부”에게서 찾고 있는 주장도 있다(Park 36).

더 나아가서, 『더블린 사람들』 곳곳에 드러나는 종교에 대한 언급들을 재고해 보면, 조이스의 종교 비판은 니체의 기독교 비판과 마찬가지로, 신의 영향력이나, 기독교에 대한 존재론적 비판²⁾이기 보다는 정치와 결탁하여 중생을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종교기관과 종교인에 대한 사회학적, 혹은 종교사회학적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작품의 곳곳에서 제도로서의 신앙이나 종교적 습관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개인적이고 실체적이며 진정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교 운동은 모든 종류의 타락, 퇴폐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퇴화된 것의 운동이다. 그것은 한 가지 종족의 쇠퇴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서로 억누르고 서로 구원하는 병적인 상태에서부터 형성된 집합체이다.” (니체 154)

『더블린 사람들』에서 종교에 대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은 「자매들」, 「우연한 만남」, 「애러비」, 「진흙」 그리고 「은총」 등이 있다. 예컨대 미사 의식 중에 저지른 실수에 대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치매에 걸려 죽은 신부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기의 모든 가치 판단을 종교적 규범에 의거하는 소년이라든가 예수회 사제에게 낭만적 상상력을 억압받는 소년들, 그리고 피정이라는 종교적 행사 때문에 ‘애러비’ 시장으로의 낭만적인 외출을 시도하지 못하는 맹건의 누이 등은 종교제도와 그 종교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교육제도 하에서 억압받고 있는 젊은이들의 제한된 상상력을 드러냄으로써 제도로서의 종교를 함축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마녀처럼 생긴 외모와는 달리 성모 마리아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진흙」의 노처녀 주인공 마리아는 세탁소의 벽에 걸려 있는 종교 선전 소책자를 싫어하며, 또한 「은총」의 톰 커어넌은 피정을 제안한 친구들에게 촛불을 들고 가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거부와 아울러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신앙과 실천의 자세를 지향하는 작가의 의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다.

기독교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은총,’ 혹은 ‘은혜’라는 어휘는 그 속에 몇 가지의 단계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총의 단계를 바흐첸의 비평용어인 ‘크로노토프’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할 경우 조이스의 「은총」을 재독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우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총’ 혹은 ‘은혜’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면, 개역판 한글 성경에 ‘은혜’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 ‘카리스(Χαρις)’는 헬라어로 ‘값없는 은사,’ ‘은총,’ ‘선물’ 혹은 ‘축복’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은총은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하는데, 사도 바울(St Paul)은 기독교 제일의 교리서라 할 수 있는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와 은총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19절-21절, 필자 강조)

그런가 하면, 칼빈 교파에서도 ‘인간의 전적 부패,’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등을 5대 교리로 삼고 있다(라보도 216-234). 즉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전적으로 부패하여 타락한 인간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 선택된 사람들에게 대한 제한된 속죄 그리고 이후에 있을 성도 자신들의 신실한 노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로마서 8장 30절). 요컨대, 타락한 인간의 전적인 부패 상태와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좌절,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구원과 축복의 단계로 구성된 시공간적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의미로 구체화하는 크로노토프적 조건인 것이다.

바흐젠은 소위 ‘시공성’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크로노토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첫째, 크로노토프는 “문학 속에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연관성”(Bakhtin 84)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크로노토프는 “소설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건들을 조직하는 중심”이며 “이야기의 매듭이 맺어지고 풀어지는 곳”이다(Bakhtin 250).

크로노토프들은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 모순되기도 하는 등 항상 복합적인 상호관련 속에 놓여있다. 크로노토프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 자체는 크로노토프 내부에 포함된 어떠한 관계들 중의 어느 하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일반적인 특징은 그것이 (가장 넓은 의미에서) 대화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대화는 작품 안에 재현되는 세계나 작품 안에 재현되는 어떤 크로노토프의 일부도 될 수 없다. 이 대화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작품의 외부는 아니지만 재현된 세계의 외부에 존재하며, 작가와 등장인물의 세계, 그리고 청중과 독자의 세계의 일부를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들도 또한 모두 크로노토프적이다. (Bakhtin 252)

첨언하자면, 크로노토프란 “객관적 현실을 예술작품의 세계로 구조화하여 재현하는 수단”(이병훈 184)이며, 아울러서 특정한 작품의 내용을 통해서 종합되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구조, 혹은 그 구조를 구성하는 플롯과 하위 플롯의 복합적인 연관관계인 셈이다. 바흐젠 자신도, 크로노토프야말로 “장르와 장르적 차이점들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또한 그것은 “형식적 구성범주로서 문학 작품 내의 인간 형상도 크게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다(Bakhtin 84-85). 즉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 복합된 환경 속에서 그러한 환경에 반응하는 등장인물의 사고와 행위를 분석했을 때, 그 작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곧 그 작품의 장르가 된다는 말이다.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확장하여, 시간을 역사적으로, 공간을 사회적으로 이해한 바흐친의 ‘크로노토프’는 “사회-역사적 관계의 특수한 복합체”(김옥동 79)이며, 아울러서 소설 속의 크로노토프는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전기와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와 ‘지리착오’를 서로 결합함으로써, 경이로움, 예측할 수 없이 끊임없는 변화, 그리고 비종결성”을 가능하게 한다(김옥동 81). 그러므로 크로노토프라는 개념의 틀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담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 아닌, 그러한 사건에 대한 알레고리적 구조인 셈이며, 그러한 알레고리적 구조의 출발점은 절대적 시공간을 담고 있는 고대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흐친은 그의 ‘크로노토프’를 설명하면서 고대 소설의 세 유형을 예로 들었다. 첫째는 시련을 극복하는 젊은 연인들의 사랑의 내용을 소재로 한 ‘모험적 시간’(Bakhtin 87)이며, 둘째는 위기의 순간에 직면한 삶의 과정을 기본 플롯으로 다루는 ‘일상생활의 모험적 시간’(Bakhtin 111)인데, 이 모험의 시간을 통해서 주인공은 범죄→옹보→구원→축복이라는 연쇄에 의해 결정되는, 일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사건들을 경험한다(Bakhtin 121). 그리고 셋째는, 진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인생행로에 대한 ‘전기적 시간’(Bakhtin 130)이다. 주로 교양 소설에 나오는 젊은 주인공들의 자아탐색의 과정에 드러난 크로노토프이다.

바흐친의 크로노토프 개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시간과 공간의 내재적 상호 연관관계를 발견한다는 점, 둘째 그러한 관계망들은 서로 대화적이라는 점, 그리고 칸트의 초월적 개념과는 달리, 직접적인 경험의 형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바흐친의 크로노토프가 칸트식의 초월적 직관형식으로서의 시공간 개념과 아인슈타인식의 경험적 상대적 시공간 개념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독창적이면서도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문학 분석의 도구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작가가 의도한 시공간과 그 사이에 침투되어 있는 다른 시공간의 의식들 사이의 대화적 관계를 통해서 크로노토프가 형성되고, 이렇게 지각된 크로노토프는 작품 안의 모든 요소들을 마치 선형적인 것처럼 제약하고 일정한 방향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한 문학 작품에서 크로노토프는 작가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선택되고 배치되는 듯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작품의 무의식적 층위에서 발견되는 양상을 띤다(김경아 211).

바흐전이 말한 대로 작품의 근거로서의 실제 세계와 작품 속에 재현된 세계는 “독자의 창조적 인식을 통해 작품을 끊임없이 쇄신되어” 가는데, 이러한 상호 교환작용을 크로노토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더 나아가서 “작품과 삶 사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또 “작품의 독특한 삶이 구성되는 특별한 창조적 크로노토프”를 구성하게 된다(Bakhtin 1981, 254).

로마서에서 교리적으로 설명되는 ‘은총’의 크로노토프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 이야기가 구약 성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욥기」이다. 「욥기」는 본 논문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은총’의 개념과 ‘크로노토프’의 개념이 완벽하게 구현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욥이 경험한 은총과 조이스가 패러디한 은총을 크로노토프적으로 비교했을 때, 작가가 작품 속에서 패러디한 ‘은총’의 내용과 그 너머 작품의 무의식적 층위에 함의되어 있는 “조국의 도덕사의 한장”의 새로운 조건으로서의 ‘은총’에 대한 회복이 가능하게 된다.

III. ‘은총’의 크로노토프: 「은총」과 「욥기」

이미 조이스 학자 및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바대로, 조이스의 동생 스타니슬라우스는 『더블린사람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야기인 “은총”이 단테의 『신곡』을 구성하고 있는 ‘지옥’과 ‘연옥’ 그리고 ‘천국’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Joyce, 1958: 228). 그리고 이러한 병치구조에 대한 주장은 『더블린사람들』의 비평의 궤적 속에서 이미 사실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Ellmann 238).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뉴먼(F. X. Newman)은 그의 논문 “The Land of Ooze: Joyce's 'Grace' and the Book of Job”에서 스타니슬라우스의 주장이 보편적으로 수용되면서 사실상 그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한 의사영웅조의(mock-heroic) 간결하면서도 상쇄한 이야기의 존재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요컨대, 조이스가 그의 이야기와 『신곡』의 병치를 염두에 두었을지는 모르나 「은총」을 좀 더 세심하게 읽어보면, 그 구조와 서사의 세부사항에서 오히려 「욥기」의 전형을

더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³⁾

세 개의 큰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는 「은총」에서는 먼저 톰 커어넌이라는 구식 외판원이 술에 취한 채 혀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 화장실에서 발견되고 그 후에 유력한 친구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다음 장면에서는 커어넌의 친구들이 환자의 병상을 찾아와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볼 것을 충고하면서, 그에게 상인들을 위한 피정에 가자고 설득을 시도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커어넌과 친구들이 교회에 가서 퍼어든 신부를 통해 세상의 인간들이 신의 심판을 대면하게 되는 방식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된다.

「욥기」 역시 이와 유사한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주인공 욥이 매우 유복한 상태에서 재난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욥이, 인과응보식의 신의 저주를 주장하며 욥의 회개를 재촉하는, 네 사람의 위로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애타게 주장하게 되고, 결말부분에서는 회오리 속에서 들려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모든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이처럼 두 이야기 사이에는 구조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세부 사항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은총」이 욥기에 대한 패러디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작품의 구조상의 공통점은 두 주인공 모두 “일상과는 철저히 구별되는 사건들을 경험”(Bakhtin 121)함으로써, 크로노토프적 경험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두 사람의 몰락의 성격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욥기」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구현’과 「은총」이 추구하는 ‘아일랜드의 도덕사의 회복,’ 그리고 두 작품의 상호텍스트성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은총’의 회복이라는 결론을 고려해 볼 때,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두 주인공의 몰락은 다분히 크로노토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때 자신의 체면과 직업에 충실했던 직업인이자 가장이었던 커어넌

3) 뉴먼은 스타니슬라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구조상으로 단테의 『신곡』에 가깝다고 알려진 조이스의 「은총」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오히려 구약성서의 「욥기」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서의 내용과 구조를 염두에 두고 그 구조를 패러디 하면서 조이스가 이 작품에서 의도한 것은 아일랜드에서는 모든 위대한 것들은 패러디 형태로만 표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패러디의 기법이 「은총」에서는 현재의 천박함에 대한 통렬한 감각을 생산하고, 『율리시즈』에서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위대함과 사소함이 혼합된 느낌을 자아냈다고 주장한다(Newman 70-79 참조).

과 “동방의 큰 사람”⁴⁾이었던 욥이 그러한 과거의 일상으로부터 타락 혹은 몰락을 통해서 ‘은총’의 크로노토프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그러나 잔칫날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우려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만큼(욥기 1:5) 완전히 절제된 생활을 했던 욥과는 달리, 커어넌은 외적인 체면을 중시하고 “조그만 주문이라도 맡기 위해 토머스 가 끝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옴”(D 156) 만큼 책임있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무절제한 폭음으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내에게 부담을 주어진 사람이다.

두 사람의 몰락의 과정은 그 환경 면에서도 매우 유사하다. 「은총」에서는 톰이 술에 취해 계단에서 넘어지기 전에 두 명의 친구들이 술에 취해 내기를 벌이다가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커어넌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녀석”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리 품행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하포드라는 사람이다. 그는 “가혹한 빗 독촉에 시달린 가톨릭 교도들”에게는 “아일랜드의 유대인”이라고 불리우고, 또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신의 불만 하에서 태어났다”고 여겨지는 더블린의 유명한 고리대금업자이다(D 159).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온(욥기 1:7)” 성경의 사탄처럼 하포드는 일요일마다 교외로 의심스러운 산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성경에서 욥의 몰락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일종의 내기에서 시작되었다. 그 대화에서 사탄은 욥이 착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냐고”(욥기 1: 9) 반박하면서, 그를 재난에 처하게 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의 청을 받아들여 욥이 고난 받게 되는 것을 허락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사탄이 만나서 욥을 고난에 처하게 한 것처럼 이름 모르는 사람과 하포드가 만나서 커어넌을 타락의 지경에 이르게 한 사실이 병치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커어넌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녀석”은 뉴먼의 말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구약 시대의 습관에 대한 패러디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Newman 72).

또한 타락의 일차적인 결과에도 유사성이 존재하는데, 커어넌의 경우, 그는

4)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칠천이요 약대가 삼천이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욥기 1: 1-3)

“피부의 미세한 일부”(D 153)가 떨어져나가는 육체적인 사고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통증 때문에 그는 토하고 싶은 느낌을 계속 갖게 된다. 욕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은 그의 소유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도 그에게 고통을 주는 종양으로 뒤덮인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족은 함참되었다가 터지는구나”(욕기 7: 5). 이와 같은 욕의 모습은 “얼굴을 바닥에 댄 채 그가 넘어져 있던 바닥의 얼룩과 분비물로 범벅이 된” 커어년의 모습과 병치된다. 그리고 “환자의 체취가 스며있는”(D 156) 그의 병실에 대한 설명도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던”(욕기 2:8) 욕의 환경을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주인공들의 반응도 서로 비슷하다. 혀를 다쳐서 그 통증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면서도, 커어년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면서 “더러워진 외투깃을 끌어당겨 목을 감싼다”(D 153). 그리고 욕도 재산이 탈취 당하고 자신의 몸에 역창이 나서 엄청난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욕기 2: 10)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당한 몰락의 결과를 최소화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커어년의 행동은 자신이 당한 사고의 흔적에 대한 수치를 감추기 위한 노력이고, 욕의 행동은 자신의 고난을 승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은총의 크로노토프에서 첫 번째 단계인 전적인 타락을 경험한 두 사람에게 그들의 타락을 일종의 ‘인과응보’로 여기는 위로자들이 찾아온다. 커어년에게는 커닝엄 씨, 맥코이 씨, 파워씨 그리고 포가티 씨가 찾아오고, 욕에게는 엘리바스(Eliphaz), 빌닷(Bildad), 소발(Zophar) 그리고 엘리후(Elihu)가 찾아온다. 뉴먼은 조이스가 애써서 네 쌍의 위로자들을 서로 맞춰놓았다고 주장한다. 욕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엘리후는 각각 커어년을 문병 왔던 커닝햄, 맥코이, 파워 그리고 포가티와 연결된다는 것이다(Newman 73).

이들의 관계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나이가 가장 많고 완벽한 분별력과 영향력, 그리고 지력을 겸비하고 있는 커닝엄은 욕의 친구 엘리바스와 유사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 검시관의 비서가 된 맥코이는 커어년의 증상에 대한 직업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자랑하는데, 그는 욕의 친구 중 빌닷과 유사하다. 그리고 커어년 보다 더 젊지만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둬으로써 세속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능력을 지닌 파워는 욕의 친구 소발과 일치하며, 똑부러지는 말투

와 교양을 갖춘 포가티는 욥의 마지막 위로자인 엘리후와 일치한다.⁵⁾

그러나 이 두 집단의 친구들의 위로는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영적인 힘을 빌어서 그의 무절제를 바로잡아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상인들을 위한 피정”(D 164)에 참여할 계획을 세운 커어넌의 친구들은 진정한 영적인 회개나 개심보다는 자신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D 164)인 퍼어든 신부나, “상류계급을 돌보는”(D 164) 예수교 종단에 관심을 보일뿐이다. 죄를 자백하고 “단지를 씻으러 가자”(D 163)고 커어넌을 설득하던 그의 친구들은 신의 은총이나 설교 내용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교황이나 사제에 대한 평가나 교회 내의 정치적 담론에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 곳곳에는 제도로서의 종교가 다스리지 못하는 음주에 의한 타락의 현주소가 아이러니하게 나타나 있다. 예컨대 커어넌은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이면서도 자신을 도와준 익명의 젊은이에게 “한잔 하자”(D 152)는 말로 감사를 표시하고, 파워씨가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커어넌 부인은 변변히 대접할 것이 없음을 미안해한다. 여기서 대접할 것이란 물론 술을 의미한다. 커어넌을 설득시켜서 술을 끊고 “새사람이 되게 해 보겠다”(D 155)고 말하던 친구들도 그 후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술대접을 받는다. 그리고 포가티는 나중에 합류하면서 위스키를 들고 들어오고, 그들은 즉시 그것을 나누어 마신다. 그 친구들은 미사에 참석하기 전에 술집에서 만나기로 한다. 심지어 종교에 대한 커어넌의 과거의 기억마저도 음주의 경험과 연결되어있다. 그는 버크 신부의 설교 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버틀러네 술집에서 크로프톤과 진지한 종교적 대화를 나누던 내용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D 165).

욥의 경우 그의 친구 중 한 사람인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발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5)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자로서 가장 정당하게 욥을 권면하였으며(욥기 2:11, 4장), 빌닷은 세상의 지혜있는 자로 동정이 부족한 자의 표상이다. 그는 욥의 고통을 논하기를 “너와 네 자녀가 당하는 고통은 중한 죄악을 범한 까닭”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욥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자 침묵해 버렸다(욥기 8장, 18장, 25장). 소발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같이 고난의 웅보설을 가지고 욥을 설득시키려고 하였으며(욥기 2:11, 11:20, 42:9),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가장 젊은 자로서 가장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욥과 친구들을 책망한다(욥기 32장-37장). (“한국 컴퓨터선교회 인명사전” <<http://kcm.co.kr/ency/names>> 참조)

그대로 거두나니”(욥기 4: 8-9)라고 말하며 인과응보에 의한 욥의 유죄를 강변하고, 빌닷도 마찬가지로,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에 붙이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욥기 8: 4-6)라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소발이라는 친구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욥기 11: 11)고 말하며, 욥이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가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을 한다. 마지막으로 그들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취려 하심이라”(욥기 33: 30)고 주장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욥을 은근히 비난하고 있다.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은 그들의 담론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친구를 회개시키고 개심시키고자 했던 초기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진정한 은총과는 거리가 먼 배금주의나 인과응보식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전적인 타락’에 이어 두 번째로 ‘은총’의 크로노토프를 구성하는 ‘응보’의 모습 속에서 두 작품의 인물들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과응보에 근거한 세속적인 보응을 논하거나, 속물적인 은총의 결과들을 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타락과 응보의 단계를 거친 “은총”의 크로노토프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함으로써 마지막 단계인 “축복”의 과정을 맞게 된다. 조이스의 「은총」에서는 피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피어든 신부의 설교를 통해서 축복의 기회를 갖게 되고, 욥기에서는 회오리 속에 현현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기회를 맞게 된다. 그러나 두 작품에서 축복은 같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은총」에서는 “가디너 가에 있는 예수회 성당”(D 172)에서 “이십 세기 초에 더블린의 중심적인 흥등가인 피어든 가를 암시하는 이름을 가진 신부”(Gifford 104)이자 “멋진 꽤남아”나 “세상일에 밝은 사람”(D 164)으로 존경을 받는 피어든 신부에 의해서 진행되는 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된다. 피어든 신부는, 비록 신부로서 자신은 혈령한 의복과 같은 이 세상의 장신구들을 착용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속세의 한 인간”이나 “영혼의 회계사”(D 174)라고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세속에 물든 종교지도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는 누가복음 제 16장 8-9절의 내용을 주제문구로 삼아, 그 구절을 “사업가와 직업인들을 위한 텍스트”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물질적인 관심사의 하부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D 173) 내용을 매우 단순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인생의 회계 장부를 살펴보고 그것이 양심과 정확하게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권고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엄한 스승은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잘못을 이해하셨고,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의 미약함을 이해하셨으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을 이해하고 계셨다. 우리들은 유혹에 빠질 뻔하였으며 때때로 빠진 적도 있었다. 우리들은 과오를 저지를 뻔하였으며 또한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청중들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그것은 하느님께 솔직하고 인간다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일 각자의 장부가 모든 점에서 부합된다면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자, 저의 회계장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있는 일이지만, 만일 무슨 착오가 있다면 사실을 시인하고 인간답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자, 저는 회계장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점과 이런 점이 잘못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저의 장부를 올바르게 맞추어보겠습니다. (D 174)

한편으로 그의 설교는 “예수를, 적게 요구하고 많이 용서하는 이해심 많은 주님으로 제시한 열토당도 않는 설교”(Burgess 42)로 인식되기도 하고, 또한 커어너를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들지 못하게 하는 “도시풍의 활기찬 설교”(Kenner 61)일 뿐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도 있고, 또한 섬겨야 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Peake 42)고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조이스는 피어든 신부가 사용한 회계의 메타포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과 연결시킴으로써 교회가 세속적 경제논리에 의존하면서 타락해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피어든 신부의 설교가 함축하는 바는 하늘의 회계장부를 맞추는 일에 있어서의 주체가 다름 아닌, 상인들을 포함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설교는 전혀 다르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찌니라. (욥기 38: 1)

하나님의 설교 부분은 퍼어든 신부의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단도직입적이다. 하나님의 설교는 세상의 창조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무력함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모든 '은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 모든 섭리에 감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한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메한 대로 내가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기 42: 7-8)

조이스의 「은총」이 결여하고 있거나,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구원과 축복의 은총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아가야 할 것인데, 오히려 더블린 사람들은 그 은총을 빙자하여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이스의 「은총」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소한 모습으로 패러디되어있다. 욥의 엄청난 재산은 커어년의 실크 햇과 라벤더 바지로 축소되어있고, 욥의 재난에 가까운 몰락은 커어년의 화장실에서의 사소한 사고로 축소되어 있으며, 무시무시한 욥의 질병은 떨어져 나간 미세한 허의 조각으로 축소되었으면, 신성모독에 가까운 많은 불평과 질문들은 교회에 대한 초점을 벗어난 비판으로 축소되어 있다. 욥의 재구덩이를 찾아오는 중후한 장로들 대신에 조이스의 작품에는 환자의 체취가 풍기는 커어년의 방에 찾아온 세 명의 공무원이 등장한다. 그리고

청산유수와 같은 욥의 논증은 「은총」에서는 서투르게 더듬거리는 말투로 바뀌어 있다.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의로운 성품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욥의 위로자들이 언급하는 하나님은 사진술의 발명에 대해 라틴어로 시를 쓴 것 때문에 그의 지혜가 인정되는 교황 레오 13세로 축소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심하게 그 의미가 축소된 것은 퍼어든 신부의 설교로서, 이것은 곧 회오리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더블린 판 패러디이다.

요컨대, 구약성서의 「욥기」의 이야기는 더블린의 종교적, 사회, 문화적 마비상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기 위한 패러디의 원전으로 사용되었으며(Newman 77), 이러한 패러디를 통해서 조이스가 일차적으로 의도했던 것은 타락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들의 이해의 범주 안에서 합리화시켜 사용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더블린 사람들의 종교관과 생활방식을 조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은총」과 「욥기」의 크로노토프적 상호텍스트성은 읽는 이로 하여금 「경절형」 더블린의 부족한 부분을 매꾸어 완전한 도형으로 돌이켜 놓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게 한다.

더블린과 우스땅의 주인공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크로노토프는 바흐젠이 말한 「길」과 「문턱」의 크로노토프이다. 바흐젠은 만남과 연관된 길의 크로노토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길의 크로노토프는 새로운 출발점인 동시에 사건의 결말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것은 마치 시간이 공간과 융합되어 길 안에서(길을 형성하면서) 흐르는 것과 같다. 이 점이 행로로서의 길의 형상이 의미심장하게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인생행로」, 「새로운 행로의 출발」, 「역사의 행로」 등으로 사용되는 근거이다. 길이 비유로 변형되는 방식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차원의 것이지만 그것의 기본 축은 시간의 흐름이다. (Bakhtin 243-4)

두 작품에서는 물리적인 길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바흐젠이 말한대로 크로노토프로서의 길은 인간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인생의 행로」로 나타난다. 우스 땅의 유복한 사람으로서 자신과 가족들의 의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던 욥의 생애와, 비록 사회적인 이유로 영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름대로 직업인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지속하고자 노력하던 더블린의 욥, 톰 커어년의 삶의 여정이 곧 길의 크로노토프인 셈이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갑작스런 사건들은 주인공들을 각각 하나의 문턱으로 인도해 간다.

바흐첸의 크로노토프 개념 중에 자주 인용되는 또 하나의 크로노토프는 바로 ‘문턱’의 크로노토프이다. ‘길’의 크로노토프의 한 매듭으로서의 ‘문턱’의 크로노토프는 작품의 주인공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작용한다. 바흐첸은 ‘문턱’의 크로노토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것은 만남의 모티프와 결합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생의 위기와 분기점의 크로노토프**로 기능한다. ‘문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일상적인 용법에서도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함께 비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삶의 분기점이나 위기의 순간,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또는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실패하는 우유부단함,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대한 공포)** 등과 연결된다. (Bakhtin 248, 필자 강조)

커어넌과 욥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다분히 ‘문턱’의 크로노토프를 발견할 수 있다. 문턱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인생의 갈림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인으로서의 삶의 양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커어넌의 삶은 ‘문턱’의 크로노토프 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신교 집안 출신인 그는 “결혼할 당시 가톨릭으로 개종했으나 한 번도 성당 경내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D 157) 사람이다. 종교적 경험에 있어서 구교와 신교의 사이에서 주변인으로 살아온 그는 형식적인 종교 행사의 상징물인 “촛불”을 “그 따위 요술 같은 것”(D 171)이라고 비난하며 철저히 거부한다. 이러한 커어넌의 문턱은 곧 술집 화장실 문턱으로 구체화되어, 커어넌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문턱’의 크로노토프는 욥의 경우에도 발견할 수 있다. 세속적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욥은 자신의 죄 뿐 아니라 자녀들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회개할 만큼 천상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욥기 1: 5). 욥의 삶의 모습은 지상과 천상의 경계 곧 ‘문턱’에서의 삶이었으며, 최악의 위협이 만연해 있는 이 땅에서 문턱 너머 천상의 삶을 꿈꾸며 살았던 경계인의 모습이었던 것이 분명해 진다. 이러한 욥의 개념상의 문턱이 그의 일상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엄청난 재난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요

컨대, 전혀 다른 두 세계를 나누는 “경계이자 그 둘을 연결하는 통로”(김정아 219)이기도 한 ‘문턱의 크로노토프’는 긍정적으로는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의 순간을 경험하는,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즉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의 양상을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한다.

두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크로노토프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먼저 욥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닥친 크로노토프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구하며 기다려서 절대자에게 인정을 받은 결과로 오해로 가득 찬 친구들의 비난을 물리치고 “처음 복보다 더한”(욥기 42: 12) 복을 받은 반면, 커어년의 경우에는 그러한 긍정적인 가능성 보다는 여전히 영적인 설교자 앞에서 물리적인 ‘체면’ 회복을 위하여 힘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D 173), 여전히 ‘은총’을 경절형의 상태로만 이해하고 있는 더블린의 크로노토프를 형상화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율리시스』에 다시 등장하는 커어년은 또 다시 진을 마셔댐으로써(U 196-198), 친구들의 계획과 작가의 계획, 더 나아가서 신의 계획마저 무기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말았다.

요컨대, 조이스 자신에 의해서 “조국의 도덕사의 한 장”으로 기록되었던 『더블린 사람들』의 작품들 중에서 「은총」이라는 단편에서는 주인공을 비롯한 더블린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신의 은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을 그것과 동일한 크로노토프의 선상에 있으면서, 더블린의 신앙을 축소하고 패러디하고 조롱하는데 그 “원전으로 사용되었다”고 여겨지는 구약 성서의 「욥기」와 비교했을 때, 그 원전은 오히려 그 패러디 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조이스가 의도했던 ‘조국의 도덕사의 한 장’은 아일랜드와 그 수도인 더블린에 만연해 있는 마비된 경절형의 양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이었으며, 그 현장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무기는 “꼼꼼하게 의도된 천박한 문체(scrupulous meanness)”였다고 알려져 있다(Letters II, 134). 또한 그러한 폭로를 통

해서 조이스가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마비의 원인파, 그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재고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과연 조이스가 기록하고자 했던 ‘조국의 도덕사’가 마비되고 기형적이고 불완전한 현재의 모습에 대한 사실적인 폭로였는지, 아니면 그러한 폭로의 이면에서 독자가 예측할 수 있는 보상된 형태의 새로운 모습을 상징하는 알레고리였는지 하는 것이다.

「은총」의 표면적인 구조에 대하여 단테의 『신곡』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일반화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그보다는 오히려 구약성서의 「욥기」의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조이스는 성서에 나타난 타락, 혹은 몰락과 은총에 의한 구원이라는 거창한 시나리오를 매우 사소한 사건으로 축소시켜서 패러디화 함으로써, 더블린의 ‘은총’을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을 다시 바흐첸의 크로노토프 이론을 바탕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둘 사이에는 타락과 응보 그리고 구원과 축복에 이르는 교리로서의 ‘은총’의 크로노토프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작품 속에 흐르는 크로노토프는 ‘상호텍스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욥기」에 나타난 은총의 크로노토프는 조이스의 「은총」속에 드러나 있는 더블린의 ‘경절형 은총’의 현주소를 보게 해 준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은총이란 “가지런한 무릎 위에 모자를 반듯이 올려놓는” 행위나 “종교적인 신앙이라는 독한 포도주를 세상의 자녀들을 위해서 물을 타서 희석시켜주는(Burgess 42)” 세속적으로 정당화된 은총이 아니라, 절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절대자의 은혜 뿐 아니라, 무관심과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위험에 처한 타자를 찾아가서 돌봐주는 “자전거 복장을 한 젊은이(D 152)”의 손길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회복을 절실히 소망하고 있는 작가의 무의식을 또한 드러내 주고 있다.

요컨대, 이와 같은 ‘크로노토프’ 간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해서 본래 폭로와 조롱과 비판을 목적으로 했던 조이스의 작품 속에 함축되어 있는 정반대의 소망, 즉 ‘경절형 은총’의 부족한 부분을 상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는 무의식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주대)

인용문헌

- 김경아. “『남도사람들』 연작의 크로노토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4집. 2003년. 208-33.
- 김옥동 역. 『바흐친과 대화주의』. 서울: 나남, 1990.
- 김종건. 『더블린 사람들/ 비평문』. 서울: 범우사, 1997.
- 니체, 프리드리히. 『권력에의 의지』. 강수남 옮김. 서울: 청하, 1997.
- 라보도 편저.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성경전서』(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5.
- 이병훈. “예술적 공간을 보는 두 가지 관점: 바흐친과 로트만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제12집. 2002년. 169-89.
- 한국 컴퓨터 선교회 홈페이지. “<http://www.kcm.co.kr>”
- Bakhtin, Mikhail. *The Dialogic Imagination*. Trans. & Ed. Caryl Emerson and Micael Holquis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 Burgess, Anthony. *Rejoyc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65.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New York: Oxford, 1959.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Walton Litz.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9
- _____. *Occasional, Critical and Political Writing*. Ed. Kevin Bar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 1. Ed. Stuart Gilbert. New York: Viking Press, 1966.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s. 2 & 3. Ed. Richard Ellman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Joyce, Stanislaus. *My Brother's Keeper: James Joyce's Early Years*.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 Faber, 1958.

- Kenner, Hugh. *Dublin's Joy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 Park, Kyung Jang. "Gnomonic Grace." 『제임스 조이스 저널』. 10권 1호. 2004. 23-39.
- Newman, F. X. "The Land of Ooze: Joyce's "Grace" and the Book of Job." *Studies in Short Fiction*. 4.1 (Fall 1966). 70-79.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London: Edward Arnold, 1977.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5.

Abstract

Chronotope in "Grace" and the "Book of Job"

Cheol-Soo Kim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structure of "Grace" in Joyce's *Dubliners* is similar to that of Dante's *Divine Comedy*. However, under detailed scrutiny it becomes clear that the story of "Grace" is in line with the "Book of Job" in the Bible. In "Grace," Joyce seems to parody the great scenario of 'Sin-Fall-Redemption by Grace' in the Bible by minimizing the sequence into a series of trivial accidents; 'falling down on a lavatory-rescued by a friend-going to a secularized retreat.'

However, comparing the two stories on the basis of Bakhtin's concept of chronotope, the readers can see the intertextuality of both stories. The chronotope here means a combination of a specific time and space in a literary work, which works as a sort of plot in the work. The chronotope has a specific structure and significance, by which the genre of a work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hero can be defined. In the course of interpretation, the intertextuality of chronotopes in the literary works sometimes betrays the authorial intention, revealing a hidden unconsciousness of the author.

The chronotope of grace in the "Book of Job" helps us see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gnomonic grace' in Dublin in Joyce's "Grace." It also manifests that the grace in a real sense is not merely justification of their 'own grace,' or any apparent change in their behaviors but an absolute present from God in heaven. In addition, it also reveals the unconsciousness of the author, who, seemingly ridiculing and criticizing the paralyzed, gnomonic situations in Dublin, eagerly hopes to overcome indifference and ego-centricism and recover the unconditional love shown in the acts of the young man in a "cycling suit," who takes care of an endangered other like the 'good Samaritan.'

- Key words : Grace, gnomon, Bakhtin, Chronotope, intertextuality, Romans, Book of Job, parody(은총, 경절형, 비호전, 크로노토프, 상호텍스트성, 로마서, 읊기, 패러디)